

문서번호 : KARA-2023364

시행일자 : 2023.09.15

수 신 처 : 장현진 선수(서한GP)

제 목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 심의 결정의 건.

1. 우리 협회는 지난 8월 19일(토),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개최된 '202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라운드'에 대한 항소위원회가 개최되어 다음과 같이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KARA 항소위원회

- 운영기간 : 2023년 9월 7일 ~ 15일
- 장 소 :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회의실
- 심의위원 : 공준덕 위원장, 권마이클, 김창규, 장성국, 황태영

2) KARA 항소위원회 심의 안건

- 상기 대회 6000클래스 결승 36랩 10.6지점에서 #44(김재현)이 우측 트랙이탈 주행한 부분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44에게 부여한 '경고+벌점1점' 판정

3) KARA 항소위원회 심의 결정

- KARA 항소위원회 심의 결정문 참고.

4) 첨부파일 : KARA 항소위원회 심의 결정문. 끝.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2023년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제3차 항소위원회 결정문

결정

대상자: 장현진 선수 (서한 GP)

주소: 경기도 용인시 *** ***** ***** **

주문

본 항소위원회는 항소자, 피항소자, 해당 대회 심사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포스트 보고서, 잠정 기록지, 출석 요청서, 심사 결정문, 공식 기록지 및 항소 신청서에 기입된 사항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본 항소위원회는 항소신청서에 기재된 해당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당 대회 심사위원회가 피항소자에게 부과한 판정을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의 드라이버 브리핑 자료, 2023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규정집 S6000 클래스 및 대한자동차경주협회가 발간한 2023 자동차 경기 국내 규정집에 명시된 트랙이탈주행 항목에 근거하여, #6 장현진 선수가 제출한 인캠 영상과 해당 사건의 중계 영상에 쓰리세컨즈가 제출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대조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본 항소위원회는 상기 나열된 드라이버 브리핑 자료, 2023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규정집 S6000 클래스, 대한자동차경주협회 2023 자동차 경기 국내 규정집에서 트랙이탈주행으로 이득을 득한 상황에 특정된 항목과 벌칙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해당 대회 심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종다양한 판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해당 대회 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연고로 드라이버 브리핑 자료와 상기 규정집들에 병행하여 해당 사건의 발생 시각과 장소에 대하여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다종다양한 판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심사 및 판정하였으며, 이는 심사위원회의 고유한 재량 행위이며, 이에 대한 행정적 행위와 절차에 오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항소위원회는 해당사건에 대하여 해당 대회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항소자에게 부과된 판정이 변경될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신청인의 항소는 기각한다. 또한 항소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본안 전 판단

본 항소위원회는 해당 대회 심사위원장, 항소자, 피항소자 및 팀 관계자의 의견 청취와 관계 보고서, 잠정 및 공식 기록지, 당시 심사 결정문, 방송 중계 영상, #6 선수의 인캠 영상 등 최초 제출 자료 및 추가 제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본 항소위원회는 먼저 항소자가 규정된 시간 내에 항소 절차대로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항소 신청서는 규정된 시간내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안 판단

1. 대상자의 지위

대상자는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 등록된 드라이버 라이선스 보유자이다.

2. 신청인의 항소 내용

SUPER6000 클래스 5 Round 결승 36Lap 주행 중에 #44김재현 선수(넥센 불가스 모터스포츠)의 10.6지점에서 발생한 트랙이탈 주행에 대한 심사결정문 “경고+벌점1점”은 부당한 심사 결정이며 이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선수라면 트랙라인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나 이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던 트랙이탈 주행은 #44김재현 선수(넥센 불가스 모터스포츠)에게 미필적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10.6지점은 직선구간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시케이인(Chicane)코너이므로 #44김재현 선수(넥센 불가스 모터스포츠)의 트랙이탈 주행은 주행거리가 줄어들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명백한 코스이탈 주행은 심사위원회에서 가산초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가산초 페널티를 요구한다.

3. 판단

본 항소위원회는 해당 대회의 드라이버 브리핑 자료, 2023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규정집 S6000클래스 및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서 발간한 2023 자

동차 경기 국내 규정집에 명시된 트랙이탈주행 항목에 준거하여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였다.

본 항소위원회는 해당 대회 드라이버 브리핑 자료와 상기 규정집들에 명시된 트랙이탈주행에 대한 판정 근거와 사례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경주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트랙이탈주행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는 다종다양한 선택과 판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선택과 판정은 심사위원회의 재량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본 항소위원회는 항소 신청서에 기입된 사항과 내용, 항소자 및 피항소자의 주장과 의견에 대하여 쓰리세컨즈가 제출한 해당 사건 발생시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하였다.

본 항소위원회는 쓰리세컨즈가 제출한 해당 사건 발생시의 데이터 분석결과에서 피항소자가 해당 대회 결승경기에서 주행한 모든 Lap 가운데 해당 사건 발생시점에서 가장 빠른 진입속도와 가장 늦은 브레이킹 포인트로 주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트랙이탈주행 중에도 약20%이하의 스톱틀 밸브(Throttle Valve) 조작이 확인되었다.

본 항소위원회에서는 피항소자의 트랙이탈주행으로 득한 시간적 이득이 발생한 것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해당 대회 개최시의 기상상황과 트랙 레이아웃의 구조적 특성, 차량 상태, 레이스 상황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항소자가 득한 이득이 레이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 항소위원회는 해당 사건 발생시의 피항소자 차량의 조작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논의한 결과 피항소자의 트랙이탈 주행에 미필적 고의성이 있었다고 명백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본 항소위원회는 해당경기의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사건에 대하여 심의되어야 하는 적합한 절차와 규정을 준거했다고 판단하였으며, 트랙이탈주행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재량행위에 의한 판정에 오류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본 항소위원회는 항소자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항소자와 신청인의 항소 신청을 기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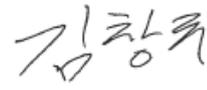
2023년 9월 15일

(사)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

위원장 공준덕 

위원 황태영 

위원 장성국 

위원 김창규 

위원 권마이클 